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 ~ 1976)

이번에 소개할 학자는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평생 '존재'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참된 실존이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함으로써 불안함을 극복해 내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실존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장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실존을 찾을 수 있다."

